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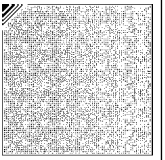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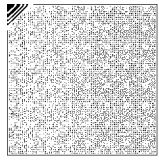


# 새 보 랴

Saeboram

Voiceye Saeboram News

소리로 읽는 새보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5년 1·2월 262호

(02) 796-4280 www.kappd.or.kr

2 뉴스  
희망의 동반자 지장협으로

12 특집 I  
지장협 신년인사회 화보

13 특집 II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 제도

18 국제  
스카이다이빙 즐기는 장애인 화제



## 지장협, 2015년 신년인사회 개최 장애인 인권 향상 결의 다져



지장협이 2015년 신년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하며 장애인 복지 발전을 기원했다.

을미년(乙未年) 새해를 맞아 전국 지체장애인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장애인 인권 향상과 장애인 복지 발전을 기원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개최한 ‘2015년 신년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에 4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실천 계획을 설계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환 중앙회장은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혁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이라는 미션을 실천하는 지도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란다”며 “장애인의 권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장애인 복지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2015년을 만들자”고 전했다.

이어서 지장협은 전국 17개 시·도협회장, 230개 시·군·구지회장 등 지도자들과 함께 지역별 장애인인권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 향상을 결의했다. 김광환 중앙회장은 추송근 중앙장애인인권위원회 명예위원장을 시작으로 고흥호 중앙장애인인권위원회 위원장과 17개 시·도장애인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그 밖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조직 운영을 위한 특강도 진행했다. 제1특강에서 김광환 중앙회장은 전국의 지도자들에게 투명한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활동을 강조했다. 특히 “조직에 더

하기가 되는 사람도 좋지만 효율적인 활동으로 곱하기의 효과를 내는 사람이 될 것”을 당부했다.

지장협 고문인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은 제2특강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의 단결과 장애인 단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지장협이 주최하고 충청북도지장협이 주관하며 충청북도청주시가 후원한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정정순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이승훈 청주시장,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는 131차 이사회와 2015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렸다.

<12면에 계속>

## 장애계, 국제교류 협력 의지 모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계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련)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1월 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5년 장애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해 장애계의 발전을 기원했다.

장총련은 “지난해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촉구 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나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은 비일비재했으며, 장애인 사망사건 등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올해는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총은 “지난해 세월호 사건과 장애인 사망사건 등으로 어느 해보다 슬픔을 겪은 가운데서도 장애계의 염원이었던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었고, 장애인 연금법 현실화에 한 발짝 다가가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올해는 박근혜 정

부 3년차를 맞아 권리보장법, 수어법 제정 등 12가지 공약에 대해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2013~2022) 선언 후 3년차가 되는 해인만큼 국제적 교류와 협력, 지원활동을 위해 합심하여 장애인복지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올해 종합판정체계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장애계와 의견 교환을 하겠다”며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도 2급에서 3급으로 확대하고, 응급안전 서비스도 3500명에서 7500명으로 늘렸으며, 서비스 내용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사회 각 계층의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장애계의 화합을 다짐했다.

## 신년사

# 을미년(乙未年) 새해, 희망의 동반자 지장협으로!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장애인 동지와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국 임직원 및 관계자, 자원봉사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장애인 염전노예 사건부터 세월호 사건, 故 송국현 씨의 화재 참사 등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하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발달장애인법, 수어법 제정 등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할 때마다 우리 지장협은 장애인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협회 산하 여러 조직에 몇몇 문제점과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무난히 해결되는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혼란을 바로 잡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회적 원칙을 지키고자 뭉친 우리의 단결력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장애인 복지의 후퇴를 조장하는 다른 어떠한 일에도 물러서지 않고 투쟁하여, 건강하고 발전적인 복지를 이룩하는데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6·4 지방선거에서는 지장협 회원 및 관계자 24명을 포함해 총 87명의 장애인 당선인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장애인들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제안자, 입안자로 도약하는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을 미션으로 미래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비전으로 밝혔듯이 우리는 장애인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당사자주의를 바탕으로 희망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복지국가 발전을 선도하고

사회통합 실현에 앞장서는 지장협을 만들어가는 길은 바로 여러분의 두 손에 달려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동지들의 손을 잡고 장애인 복지 실현 한 길로 걸어갑시다. 그 길은 비록 멀고 험난하지만 우리가 뭉치면 못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껏 닦아 온 인권 확립 투쟁의 기억을 잊지 말고 보편적인 권리를 쟁취하는 그 날까지 힘을 합쳐야 함을 당부합니다. 저 또한 장애인 복지가 한 단계 발전하는 2015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새로이 임명된 17명의 지도자 동지들과 함께 존경하는 장애인 동지들의 희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을미년 한해, 이해심이 뛰어나며 화합하는 성향이 강한 청양(靑羊)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사회 모두 원만한 화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희망찬 미래를 향한 바람을 품어 봅시다. 우리 지장협의 더욱 단단한 연대와 풍요로운 결실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회원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김광환 배상



## 장애인복지카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통합 읍·면·동을 통해 발급신청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통합

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가 탄생했다.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 통행료 할인 시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12월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한 장으로 합친 장애인통합복지카드가 생겼다. 발급신청을 받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기존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하이패스카드 및 교통카드 기능을 하나로 통합했다.

읍·면·동을 통해 장애인통

합복지카드를 발급하면 기존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은 중지된다.

현재 사용 중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 도래 시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번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은 정부 3.0 과제(취약계층 맞춤형 민원서비스 발굴·확산)로 추진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신한카드사(대표이사 위성호) 5개 기관이 협업해 이뤄졌다.

한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복지카드와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를 통합한 '국가유공자통합복지카드'가 발급된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62호 2015년 2월 9일

회장·발행인/김광환 편집장/오창석 기자/이정희 발행처/(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영등포 라 00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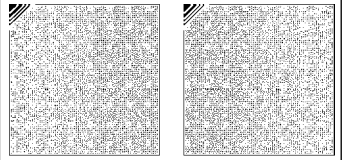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news@kappd.or.kr](mailto:news@kappd.or.kr)

대표전화 : (02)796-4280 FAX : (02)796-4281

구독문의 : (02)2289-438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최우수기관 발표

## 문경장복 · 괴산장복 등 15곳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하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 이하 공단)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품질 최우수기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최우수기관은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괴산군장애인복지관 등 15곳이다. 지난해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154개소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이 같이 선정했다고 1월 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이용자에게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기관 운영실태,

인력의 전문성, 시설 환경,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 과정 및 절차, 서비스 제공결과, 기관 운영 개선 등 51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154개 기관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15개 기관이 '최우수기관', 평가점수 90점 이상인 85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별 점수는 대구가 평균 95.5점으로 가장 높았다. 대전(95점), 경남(94.3점), 제주(94.2점)가 뒤를 이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전남(87.5점), 전북(87.8점), 경기(89점), 경북(89.68점) 충남(90.25점), 충북(90.5점)은 평균 점수인 90.7점 보다 낮

았다.

공단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15개소에 향후 서비스 품질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단 측은 "평가결과 부진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우수기관 멘토링 프로그램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 활동지원기관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괴산군장애인복지관 정효선 관장은 "이번 활동지원기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운영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도	활동지원기관명	비고
서울특별시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부산광역시	동구장애인복지관(★), 부산뇌병변복지관,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상리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대구광역시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3개소
광주광역시	염마루복지관(★)	1개소
경기도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전라남도	해림종합복지관(★)	1개소
경상북도	구미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문경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2개소
충청북도	괴산군장애인복지관,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2개소

최우수기관 15개소

한편 복지부와 공단은 2014년부터 기관유형별로 나누어 3년에 걸쳐 정기평가를 실시 중이다. 2015년에는 지역사회활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276개소, 2016년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단체 등 268개소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제9대 장총련 안진환 상임대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 선임

### “장애인 단체와 시민사회와의 조화 이루는 용광로 될 것”

제9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상임대표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1월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

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최종 승인 후 안진환 상임대표는 “앞으로 장총련은 대안적 장애인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인권단체로서 거듭나야 한다”며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해 장총련의 위

상을 재정비하고 역동적인 장총련으로 세대교체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또 장총련의 수익 사업을 재검토 해 회원단체와의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장애인운동의 선두에 서

서 장애인 정책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진환 상임대표는 장총련의 최대 가치인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통해 장애인의 목소리를 내는 장총련, 혁신적인 장총련, 소신 있게 정부와 맞설 수 있는 장총련을 건설해 장애인 단체와 시민사회와의 조화를 이뤄내는 용광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 성명서

## 장애인개발원장 파행적 인선결과 책임 있는 개발원 임추위는 해산하라.

##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를 무시한 정부는 각성하라.

보건복지부는 1월 5일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오던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공모결과를 발표하였다. 장장 4개월 동안에 걸친 두 차례의 공모과정에서 무려 18명이나 되는 장애계의 우수한 인사들이 응모한 가운데에서도 최종 결론은 결국 적격자가 없다는 결과를 통보한 것이다.

개발원 임원추천위원회는 10명이 응모했던 1차 공모 때는 아예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하고 복지부에 추천조차 하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재공모에서는 8명이 응모하여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2명을 복지부에 추천했지만 후보자 2명 모두 적격자가 아니라며 탈락시킨 것이다.

장애인복지 정책수행의 중추적인 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중요성이 막중함에도 개발원장 인선이 4개월이 넘도록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현 상황은 정부가 과연 장애인복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할 뿐이다.

과연 복지부에서 원하는 적격자는 누구란 말인가? 공모에 참여했던 18명 중에는 장애계가 아닌 타 분야의 전문가도 있었지만 장애인당사자로서 오랜 기간 장애인복지를 위해 헌신해 온 인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인물들이 적격자가 아니라는 결정에 우리 장애인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정권의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한 인사파행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500만 명의 장애인들이 개발원에 거는 기대를 무시하고 개발원장직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흥정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점에서 장애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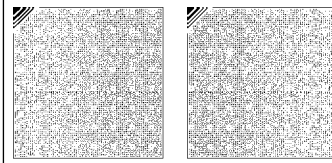
이러한 기조라면 앞으로 진행될 개발원장 인선에 대해서도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파행적 인사태풍 속에서 기관의 발전과 적극적인 직무수행이 이루어지겠는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전가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이제 우리 장애인들은 더 이상 보건복지부와 개발원 임원추천위원회의 무책임한 행태를 좌시할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의 대오각성과 임원추천위원회의 해산 및 재구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진정 장애계의 촉망받는 지도자가 개발원의 수장으로 임명되고,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장애인복지 정책발전을 위해 그 역할에 매진할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5. 1. 6.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부천 지체장애인 · 양주 남매... 장애인 화재 사망 충격

## 예방 및 대응책 목소리 높아

겨우내 장애인 화재 사망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12월 24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맥주가게에서 영업 전인 시각, 골방에 홀로 있던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부회장이 원인 모를 화재 사고에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숨졌다.

장애계에 애도의 물결이 채 지나기도 전인 1월 12일 경기 부천시 한 단독주택 1층 단칸방에서 불이 나 홀로 살던 50대 지체장애인 이 모 씨가 세상을 떠났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했으며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는 이 씨는 급속히 번진 화마와 사투를 벌이다 숨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다음날인 13일 경기 양주시에서 아파트 화재가 발생해 20대 남매가 숨졌다. 불이 난지 50분 만에 진화됐으나 집 안에 있던 장애인 동생 황 모 씨는 숨진 채 발견됐고, 누나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당시 남매의 부모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장애인 재난 대비 체계 개선 한 목소리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화재 사고 발생 시 비장애인보다 사망률이 높다.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의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2월 17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누리홀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 주최로 '장애인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의 장애인을 위한 재난 및 위기대응 시스템' 주제발표에서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장애인 통합조정국을 운영하며 재난 준비, 소통, 대피소 운영, 안식처 제공, 피해 보상, 치료, 재정착 서비스 등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안 위원은 "우리나라도 정부, 민간, 지역사회, 개인 수준에 맞는 장애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편 의증진부장은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사례'를 발표했다. 김 부장은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잘 갖추지 못했기에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매뉴얼을 소개하며 이를 참고해 국내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장애 유형별 재난대응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경서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주임은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체계' 발표에서 장애인 화재사고 발생 통계를 근거로 해법을 살펴봤다.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집계한 서울시 장애인 화재사고 발생 통계 결과를 보면 장애인 사상자 중 사망비율은 57.4%, 비장애인 사상자 중 사망비율은 12.1%로 나타나 장애인 사망비율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박 주임은 "현재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e-서비스와 중증 독거장애인 및 거주시설 긴급구조 체계 등을 갖춰나가고 있으나 재

난 중심이 아닌 보건의료 중심이고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장애인 재난안전분야와 보건의료 분야 부서 간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장애인 안전정책의 시민 참여도 확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안전관리 법체계의 문제점과 장애인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법률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후 주제토론에서 김영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정책국장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은 화재와 같은 재난에 취약하다"며 "공공기관뿐 아니라 생활영역의 크고 작은 건물에도 재난 대비 시설을 잘 갖추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명균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사무처장은 "지적장애인은 단기적인 훈련만으로 재난대응 시스템을 익히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에 익숙한 보호자와 함께 주기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활동지원서비스 3급 확대 등 대책 마련

지난해 4월 장애3급으로 활동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했던 故송국현 씨가 화재로 숨지면서 장애계는 보건복지부에 사과와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장애3급까지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어서 최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계 신년인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응급알림e-서비스 대상자를 3500명에서 7500명으로 늘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서비스는 화재나 가스 누출 등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자 대처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다. 집안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가까운 소방서나 지역센터에서 응급 상황을 감지하거나 중증장애인 본인이나 활동보조인 등이 응급호출기나 게이트웨이로 보낸 도움 요청을 받아 신속하게 출동·구조활동을 할 수 있게 한 응급안전서비스다. 복지부는 현재 20여 개 시·군·구 지역에서 실시하던 것을 78개 지역으로 확대해 재난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의 화재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사고 예방교육 의무화

### 박창식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창식 의원(새누리당)이 장애인의 안전사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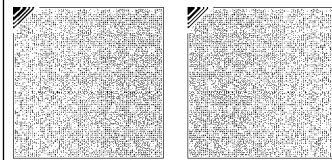
의료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 많은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안

전사고에 취약해 사고 발생 시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종사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 대응책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종사자와 시설을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양성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사회 안전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재난 대응 관련 시스템이 구체화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장애인지예산 제도, 법의 뒷받침 필요

## 전국장애인지예산 제도화 추진연대 토론회 열어

장애인지예산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하는 자리 가 마련됐다. 전국장애인지예산 제도화 추진연대(이하 장애인지예산 연대)는 1월 21일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지예산 연대가 발표한 장애인지예산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장애인지예산이란 모든 정책 예산에 장애인을 고려해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예산 뿐 아니라 모든 예산에 장애를 고려한 형평성 있는 예산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장애인도 보편적 시민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장애인지예산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은 2008년 목원대학교 김동기 교수였다. 그 후 논의가 정제됐다가 대정부 질의시 김황식 총리가 도입의지를 밝히며 불을 지폈다. 2012년에는 장애인 희망서를 계획 발표 시

장애인지예산 도입을 선언하며 기대를 모았다.

### 장애형평적예산 1~2% 타당

장애인지예산 제도화를 위해 1년간 진행한 이번 연구는 한국 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현근식 연구위원과 목원대학교 김동기 교수, 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박사, 여성정책연구원 이선민 박사가 참여했다. 서울시 일반정책예산 중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장기안심주택 사업, 주택바우처 사업,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등을 대상으로 장애영향평가를 한 결과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는 장애인 참여 여부를 알 수 있는 통계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기 어렵고 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는 장애인을 사회에 통합하고자 하는 장애인 정책에 위배되며 장애인의 시민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목원대학교 김동기 교수는 “장애인지예산제도는 장애와 비장애인 간의 평등을 추구하는 예

산제도로서, 국가 예산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정책 예산에 대한 접근 없이 양자 간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장애형평적 예산은 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1~2% 사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 기준 GDP 대비 1~2%에 해당하는 규모는 약 11.27~22.53조인 반면, 2011년 장애인복지 예산은 1조 2,821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지예산 제도에서는 장애영향평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2013년 만든 장애영향 분석틀을 갖고 국민연금과 서울시 장기안심주택을 분석했다.

### 제도 도입 타당성 적극 홍보 필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현근식 연구위원은 “장애인지예산 제도는 가장 강력한 정책도구인 예산 편성 과정에 장애인을 고려하자는 의미”라며 “주요 일반 정책 사업에 장애인을 고려한 장애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지예산 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영향평가지표는 장애인개발원에서 만든 7단계 지표와 이번에 개발한 3단계 지표를 비교하고 두 지표 모두 성별 영향 분석 지침의 분석틀을 활용해 다양한 분석평가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평택대학교 권선진 교수는 “장애주류화 정책은 포괄적 접근방법과 장애특정적

접근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장애인지예산 제도화는 평등 및 통합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고용개발원 김용탁 박사는 현 상황에서 장애인지예산 제도화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입을 위해 용이한 전략”이라며 “장애인지예산의 성과와 효과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으므로 도입 타당성을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각장애인 길찾기 앱 ‘커뮤니티 맵핑’ 출시

### 실시간 정보 음성으로 길 안내



커뮤니티 맵핑 사용자가 신호등 앞에 서 있는 모습.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 찾기 애플리케이션 ‘커뮤니티 맵핑’이 나왔다. 1월 19일 벤처기업 소니스트(대표 김경태)는 비장애인이

신호등을 촬영해 정보를 공유하면 시각장애인이 실시간으로 제 공받아 음성으로 길 안내를 받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정보를 입력

한 사람은 할인 쿠폰 혜택을 받는다.

시각장애인이 앱을 실행하면 GPS를 통해 자동으로 주변 지역이 특정되고, 공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애인과 신호등간의 거리가 음성 출력된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니스트 김경태 대표는 운전

하다가 신호등 앞에서 머뭇대는 시각장애인을 보고 지도와 음성 출력 시스템을 접목해 앱을 개발했다.

김 대표는 “기존의 길 찾기 앱은 위치 정보 서비스가 시각적인 데이터만 제공하는 것에 그쳐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제한이 많았다”며 “커뮤니티 맵핑은 해당 데이터를 음성으로 출력하기

에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운대학교 모바일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며, 1994년생(만 20세)으로 국내 최연소 법인 벤처기업인이다. 자세한 내용은 소니스트 홈페이지(www.sonist.co.kr)에서 살펴보면 된다.

## 고궁 야간개장, 장애인 선착순 무료 관람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2015년 고궁 야간 특별관람을 연 4회 개최한다. 겨울 야간 특별관람 일정은 ▲경복궁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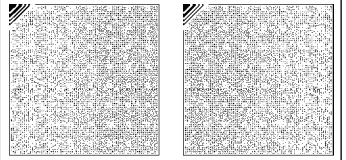
11일부터 16일까지 ▲창경궁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각 6일 동안 시행한다. 1일 최대 관람인원은 경북

궁, 창경궁 각 2,200명이며, 관람권 구매는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관람료는 일반관람(경복궁 3,000원, 창경궁 1,000원)과

같다. 무료관람은 장애인·국가유공자 각 50명씩 선착순 적용되며, 사전예매 없이 현장에서 장애인증과 국가유공자증

을 제시하면 된다. 장애인 1~3급은 본인과 보호자 1명 무료이며, 4급 이하는 본인만 무료다.

향후 봄 5월 12일간, 여름 8월 12일간, 가을 10~11월 12일간 실시 예정이다.



# 아시아나, 척수장애인 기내 사고 자부담 요구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부실한 기내 휠체어와 서비스 문제”

아시아나항공사 비행기에 탑승해 좌석 이동 중 다친 척수장애인이 병원비 부담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지난해 9월 15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주도협회에서 주관하는 문화탐방의 일원으로 아시아나 비행기를 이용하게 된 임대진(50세, 지체1급) 씨. 임 씨 등 회원 24명은 제주도에서 대구까지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좁은 기내로 이동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팔걸이와 안전벨트 없이 간소화 된 기내용 휠체어에 옮겨 타야만 했다.

먼저 줄 서 있던 임 씨가 승무원의 도움을 받아 기내용 휠체어에 옮겨 타고 좌석으로 이동하던 중 회전하는 구간에서 휠체어 밖으로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질 때 허리와 골반 부근에 타박상을 입었고, 어렵게 준비했던 문화탐방을 즐기기는커녕 통증에 신음하며 대구 일정 2박3일간 숙소와 버스 안에만 있어야 했다.

임 씨는 제주로 돌아와 병원비와 간병비, 휴업손해 등의 처리를 아시아나 측에 요구했다. 아시아나는 초기에 병원생활에 어려움이 큰 임씨를 위해 간병인도 구해줬으나 최근 병원비 등

20% 자부담을 요구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현재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하고,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함에도 임 씨는 비용이 없어 아시아나에서 구해줬던 간병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간병인 없이는 물리치료실까지 혼자 이동할 수 없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임 씨는 간병인을 들일 비용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고 후 지금까지 나온 병원비는 1900만 원. 임 씨는 승무원이 옮기는 도중 사고가 났는데 20%나 되는 고액의 치료비를 승객이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다

고 밝히고 있다.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측은 1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부실한 기내용 휠체어를 이용해 직원이 이동시키던 중 부상을 입었는데 피해자의 과실을 운운하는 아시아나의 태도는 수준이하”라고 말했다.

이어서 “척수장애인은 균형 감각이 없어 스스로 앉기가 어려운 장애유형”이라며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없이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서비스 전문기관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전했다.

또 사고 이후 보여준 아시아나항공사의 태도에 인권을 무시하는 요소가 많이 있다고도 지적했

다. ‘쓰러지는 장애인을 붙잡게 되면 성희롱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며 임 씨가 바닥에 떨어지는데 조치하지 못한 이유를 밝힌 아시아나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치료에 만전을 기하며 응분의 보상을 할 것,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용 보장구(기내 휠체어 등)에 대한 점검과 준비로 안전사고에 완벽히 대비할 것, ▲전 직원에게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해,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고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 장애학생 절반 넘게 인권침해 경험

### 인권위, 통합교육현장의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 결과

장애학생이 절반 넘게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발표한 초·중·고 통합교육현장의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사, 일반교사, 보조인력, 학부모 등 전체 조사 대상 1606명 중 59.2%가 인권침해를 겪었다.

통합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학생 인권침해유형은 편의제공 미지원(29.9%), 사생활침해(16.3%), 언어폭력(25%), 괴롭힘(19.2%), 폭력(16%),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14.4%) 및 교육기회차별(12.5%)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및 사생활침해는 주로 교실 내 쉬는 시간에 집단에 의해 발생했으며, 장기결석방치 및 무관심 등 교육적 방임은 주로 일반교사에 의해 수업시간에 발생했다.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65.2%)가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39.7%)보다 높았다. 국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에서, 농산어촌이나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학부모는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체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답했으나, 학교는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표본을 추출, 특수교사(399명), 일반교사(577명), 보조인력(263명), 학부모(367명)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를 수행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삼섭 공주대학교 교수)은 전문가들과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장애인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권고를 할 계획이다.

## 저상버스 도입 확대 추진

### 이찬열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등 교통약자들의 원활한 버스 이용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14년 기준 16%로 저조하다. 서울도 35%로 유럽 주요 도시 9곳이 100%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하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저상버스 도입률에 도달할 때

까지 대폐차를 저상버스로 대체하고, 전세버스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1월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이나 군수가 시·군·구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도 광역단체장은 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통합센터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상버스의 대폐차가 일반버스로 도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반버스의 대폐차 또한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어 저상버스 도입 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가용 인식개선 공모전…최우수상 250만원

### 에세이, 인쇄매체디자인, 사진 총 3개 분야

한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장애인가용 인식개선 작품현상공모전의 주제는 ‘장애인가용-함께 일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로 에세이, 인쇄매체디자인, 사진 총 3개 분야의 작품을 접수한다.

참가자격에 제한은 없으며, 응모자는 장애인가용에 관한 작품

을 2월 27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www.keadcontest.co.kr)에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접수된 응모작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3월 13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각 부문별 최우수작 1편에는 고용노동부장관상과 상금 250

만 원, 우수작 1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 원, 장려작 5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 원이 주어진다.

이번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www.keadcontest.co.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 게시된 공모 요강을 참조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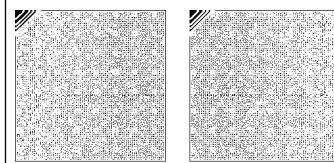


장애인가용 인식개선 공모전 포스터. ©한국장애인가용공단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가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

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모





#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 전국 순시

## 시·도협회 및 시설 돌아보며 소통과 성장 강조



김광환 중앙회장이 1월 14일 경남지장협 순시 후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전국 17개 시·도협회 및 230개 지회와 57개 장애인 복지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이 전국 순시에 나섰다.

이번 순시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 현안을 파악하고 2015년 사업 계획을 점검해 장애인복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했다.

1월 14일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경북, 전남 순서로 방문해 지역 협회와 복지시설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순시를 진행하며 “지역의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할 줄 아는 협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회는 지방 조직과의 원활한 소통에 귀 기울이고 전국적 교류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복지의 전국적 발전을 위해 지역 조직의 성장이 중요하다”며 “행정능력과 사업수행능력 향상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광환 중앙회장은 1월 다섯 지역을 방문한 데 이어서 2월부터는 충남, 충북, 세종, 경기, 서울, 강원, 인천, 제주, 대전, 전북, 광주, 울산 지역 순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 전남 등 지체장애인 신임 지도자들 취임식 열려 지장협 시·도협회장 새로운 각오 다짐

전국 지체장애인 신임 지도자들의 취임식이 각 시·도에서 열렸다. 12월 17일 영광스포티움에서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가 장재곤 협회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전남 관계자들과 장애인 가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과 기념식을 펼치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26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가 봉개동 향토음식점에서 부형종 협회장의 취임식과 송년회를 열었다. 부형종 협회장은 “묵은 것은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낸다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정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는 29일 수림공원연회장에서 임순봉 협회장의 취



12월 29일 진행한 인천지장협 임순봉 협회장의 취임식 모습.

임식과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임순봉 협회장은 취임사로 “힘 있게 인천광역시의 장애인복지를 주도하는 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 혁신적인 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광환 중앙회장은 치사를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의 역

량을 발휘하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재할 기반을 다져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1월 14일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김덕선 협회장의 취임식이 열렸고, 30일에는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김창환 협회장의 취임식이 진행됐다.

## 부산 중증장애인 합동결혼식 신혼여행 팬스타라인 제공 5쌍 무료체험



장애인 신혼부부들이 단체로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다.

부산 중증장애인 신혼부부들이 단체로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다.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광표, 이하 부산지장협)는 신혼부부 합동결혼식을 진행한 후 (주)팬스타라인닷컴에서 후원 받은 ‘부산항 원나잇 크루즈’ 무료체험을 5쌍에게 제공했다.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2일간 장애인 부부들은 배길로 부산국제여객터미널부터 태종대를 거쳐 해운대와 광안리를 지나 돌아오는 여정을 즐겼다.

운항하는 동안 선내 시설을 견학하고 불꽃 쇼 등 다양한 공연을 보며 신혼의 추억을 만들었다. 부산지장협 김광표 협회장은 따로 신혼여행 선물을 준비해 축하했다.

지체장애1급으로 휠체어를 타고 승선한 이선명 씨는 “처음 크루즈를 타서 본 부산 연안의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다”며 “공연과 불꽃쇼도 인상적이어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 서울지장협 정기총회 개최

### 감사 선임 및 2015년 사업계획·예산안 등 의결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손영호, 이하 서울지장협) 2015년 정기총회가 1월 20일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손영호 협회장과 운영위원, 25개 산하 지회장과 부지회장 등 대의원 전원과 외빈으로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이후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선임감사로는 박동근(서울시장장애인게이트볼연맹회장), 박기대(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대의원) 감사가

선임됐다.

손영호 협회장은 “작은 일이라도 정관에 명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일을 해 나가자”며 “올 한 해 마무리 할 때까지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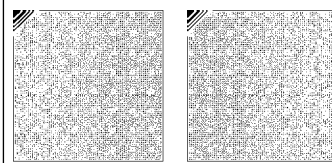
## 영덕군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에게 쌀 기부

영덕군의 지체장애인들이 지적장애인에게 사랑의 쌀을 기부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영덕군지회(지회장 김대환, 이하 영덕군지회)는 12월 19일 영덕군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방문해 회원들이 모은 햅쌀(20kg) 10포를 전달했다.

영덕군지회 김대환 회장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며 나눔을 실천을 하는 것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설립목적”이라고 강조하며 “지역 내 생활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덕군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측도 고마움을 표현하며 지역장애인이 상생할 수 있는 연대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 인천지장협-재능대 사회복지학과 MOU

## 산학공동연구 · 현장실습 맞손



인천지장협과 인천재능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임순봉, 이하 인천지장협)와 인천재능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1월 9일 열린 협약식에는 임순봉 협회장과 사회복지학과 조미경 교수가 각각 협약서에 사인하며 상호 교류와 협조를 약속했다.

이후 인천지장협과 재능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각종 교육 자료와 사업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재를

를 파견하기로 했다. 재능대학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생과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고 인천지장협은 취업 연계를 돕는 한편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임순봉 협회장은 “이번 산학협력을 계기로 복지 현장과 교육의 상호 교류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뜻 깊은 약속을 추진해 주신 조미경 교수님과 재능대학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전북 사회복지 단체 대상 ‘몸·숨·마음 보듬기’

### 100여 명 모여 치유 프로그램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형곤, 이하 전복지장협)는 12월 29일 전주시 풍남관광호텔에서 ‘몸·숨·마음 보듬기’ 사업을 개최했다.

한 해 동안 장애인 복지를 위해 노력한 사회복지 단체장과 실무자들을 격려하고, 일상에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자 마련한 자리에 전라북도 등록 사회복지 48개 단체장 및 실무자 100여 명이 모였다.

먼저 전북의회 국주영 의원을 초빙해 ‘장애인 단체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대담을 펼쳤다. 다양한 의견이 오간 가운데서도 특히 장애인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전북 단체장 및 실무자들이 ‘몸·숨·마음 보듬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점을 공감했다. 다음으로 전주시의회 오정화 의원이 ‘책에게 말을 걸다’라는 이름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복지장협 김형곤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아름다운

운 화음을 이루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며 “오늘의 다짐을 바탕으로 전라북도가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장애인 복지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문경시지회, 점촌농협과 주차장 관리 위탁 체결

### 하나로마트에 장애인 주차장 관리요원 배치

경북 문경시 점촌농협 하나로마트에 주차관리 요원으로 지체장애인 3명이 배치됐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지회장 박홍진, 이하 문경시지회)가 점촌농협과 관리 위탁을 체결하며 배치한 것. 이번 위탁 운영은 보건소 주차장에 이어 두 번째로, 장애인 일자리 확산을 꾀하는 문경시지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눈에 띈다.

박홍진 지회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자립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자리를 제공해 준 점촌농협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주차요원의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 지장협 신임 지회장들 임명장 받아



대전지장협이 지회장 임명장 수여식을 실시했다.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구자권, 이하 대전지장협)가 1월 27일 지회장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임명된 지회장은 대덕구지회(문선우 지회장), 유성구지회(박종해 지회장), 중구지회(김채린 지회장)이며, 각 지

회와 시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구자권 협회장은 임명된 지회장들에게 “새로운 협회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도덕성과 윤리성을 철저히 강조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 제주도 장애인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생겨

### 심리치료 · 자활교육 전문 ‘그린터’ 개원

제주도에 장애인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이 생겼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부형종, 이하 제주지장협)는 1월 7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다목적실에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그린터’ 개원식을 진행했다.

제주지장협 측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은 의사능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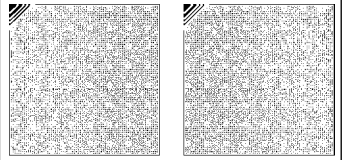
불완전한 장애인 성폭력 등 범죄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장애인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치료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개원식에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 등 많은

의원들과 각 장애인 단체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성폭력 피해로 시설 입소를 원할 시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에 전화나 방문 상담 후 보호시설로 인계한다. 입소 후 보호 시설에서 숙식하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기 위한 치료와 상담을 받고,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과 자활 교육, 의료 서비스도 지원 받게 된다.





# 대구지장협, 시무식 ‘Dream’ 개최

## “꿈을 품고 전진하는 새해가 되자”



대구지장협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함께 시무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창환, 이하 대구지장협)는 1월 5일,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대구지장협 및 산하기관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및 산하기관 시무식’을 실시했다.

화려한 변검술로 시무식의 막을 연 시무식은 2014년 한 해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준 임직원들에 대한

모범직원 시상으로 이어졌다. 그 후 떡케이크 커팅과 새해인사 릴레이를 하며 2015년의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김창환 협회장은 2015년 시무식의 슬로건을 Dream으로 정하고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꿈을 꾸는 자는 절망하지 않고 긍정적인 자세로 매사를 처리해나간다. 우리 대구지장협 식구들은 꿈을 실현하고자 전진하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교통약자의 발이 되는 행복콜 운행

### 김천시이동지원센터 차량 시승식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가 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센터장 박선하) ‘김천행복콜’ 차량 설명회 및 시승식을 실시했다.

1월 14일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설명회는 장애인단체장, 노인회 단체장, 시청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천행복콜은 1월 초 시범

(무료)운행에 이어 1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유료운행을 하게 된다.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공휴일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운행한다. 운행구역은 김천시 전역,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김천시와 연결한 인근 시·군이며 시외 운행은 병원 이용 목적으로 제한한다.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약자 임신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의사진단서 첨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시내 기본 운임(2km까지) 1,400원, 2~10km까지 km당 300원, 10km이상 km당 100원이다. 자세한 문의와 접



김천시이동지원센터가 행복콜 시승식을 실시했다.

수는 전화 1899-9547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박선하 센터장은 시승식에서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 운

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며 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창원시진해지회 장애인전용목욕탕 개관

### 장애인 누구나 무료 이용



창원시진해장애인목욕탕 개관을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창원시진해지회(지회장 이희용, 이하

창원시진해지회)가 장애인전용목욕탕을 개관했다. 1월 23일 개관

한 ‘창원시진해장애인목욕탕’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603번길 17-9(풍호동)에 있으며, 부지면적 410㎡, 건물연면적 627㎡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건물이다. 남녀목욕탕,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휴게실, 체격단련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 건물 내 모든 문이 자동으로 열고 닫히며, 욕탕 턱이 낮고 탕내에 미끄럼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비용도 무료로 장애인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이 목욕탕은 창원시진해지회에서 위탁 운영한다.

## 서울북부장복, 지역사회에 연탄 500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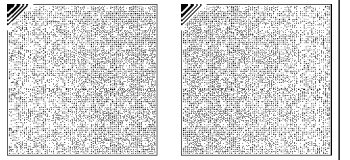
서울북부장복이 지장협 노원구지회 하계1동분회에 연탄을 지원했다.

서울시립북부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손영호, 이하 북부장복)이 지역사회에 연탄을 나눴다. 12월 22일 서울북부장복은 나눔 문화 확산 자원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 하계1동분회에 연탄 500장을 지원했다.

연탄을 지원받은 하계1동 한호순 분회장은 “겨울에는 연탄걱정

에 사무실에 모이기 어려웠다”며 “덕분에 이번 겨울엔 사무실에 함께 모여 더욱 활발한 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동안 재가장애인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에 집중했던 서울북부장복 후원회는 앞으로도 열악한 소규모 장애인 단체를 지원해 활성화를 돕겠다고 밝혔다.



# 목포장복 조문호 관장, 지장협 복지관협의회장 선출

## “소통과 협조 통해 유기적으로 운영할 것”



지장협 복지관협의회 회의에서 목포장복 조문호 관장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장애인복지관협의회가 새로운 협의회장을 선출했다.

1월 28일 라마다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성원 20명 중 19명 참석으로 열린 장애인복지관협의회 1차 관장회의에서 안건으로 제6대 협의회 회장 지명안이 상

정되었다. 운영규칙 ‘제3장 조직 제8조(구성) ②항 : 협의회장은 복지관장 중에서 법인 대표이사

가 지명하며, 부회장은 협의회장이 지명한다’에 의거하여 목포

역임하신 협의회 회장의 노고와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이끌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중앙 법인과 소통하며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선출 소감을 전했다.

조문호 신임 회장은 “그 동안

## 장애인 인권감수성 향상 위한 공모전, ‘오마주’

### 용인처인장복, 총 6팀 시상



용인처인장복의 그림 공모전 ‘오마주’ 시상식 기념 촬영.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관장 정의철, 이하 용인처인장복)이 2014년 장애인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그림 공모전 ‘오마주’ 시상식을 진행했다.

용인처인장복은 10월 27일부

터 11월 28일까지 용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긍정적인 방향이 담긴 내용의 그림을 공모했다. 프랑스로 존중, 존경을 의미하는 ‘오마주’를 타이틀로 이 공모전에

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해소를 위한 방향이 담긴 작품이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모습이 담긴 내용 등 다양한 작품이 접수됐다.

용인처인장복은 심사를 통해 6작품을 선정했고 12월 24일 복지관 강당에서 최우수상(김\*은 외 9명), 우수상(박\*예, 신\*지), 장려상(변\*빈, 이\*미, 장\*수)을 시상하며 박수를 보냈다.

한 수상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인권에 대한 방관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인권 지킴이가 된 것 같다”며 “인권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변화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밝혔다.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개별운동처방 및 운동지도를 펼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독거 재가장애인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적 차원에서 기획됐다. 김천장복 관계자는 “더불어 행복하고 편안한 삶,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한 해 동안 활기차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천장복, 독거 재가장애인의 건강증진프로그램 실시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하, 이하 김천장복)은 2015년 한 해 동안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독거 재가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회복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

램’을 실시한다.

첫 날인 1월 21일에는 독거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김천시 보건소 건강증진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며 체성분 측정과 기초체력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 제8회 장애인 장학금 전달식 열려

### 정읍장복, 학습권 보장과 자립의지 고취 목표



정읍장복이 장애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전북 정읍시에서 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다. 정읍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형, 이하 정읍장복)은 12월 12일 복지관 강당에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장애인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자녀의 경제적인 경감과 학습권 보장을 통한 자립의지 고취를 위해 8년째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장애인 학생 6명과 장애인 자녀 16명이 장학금 지원을 받았다. 정읍장복 측

은 2006년부터 조성한 장학금을 기반으로 2007년부터 매년 20명 이내의 정읍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62명에게 3228만원을 지급했다.

정읍장복 박종형 관장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경제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가정환경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하는 장애인 학생, 장애인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 세상을 향해 뚝나가는 큰 일꾼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충남남부장복-공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MOU

### 장애 아동을 위한 식습관 형성 프로그램 진행

충청남도남부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대혁, 이하 충남남부장복)과 공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윤혜려)가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1월 30일 공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양쪽은 ▲균형 잡힌 식단 제공 ▲올바른 식습관 형성 ▲위생적인 급식 제공 ▲삶의 만족감 증진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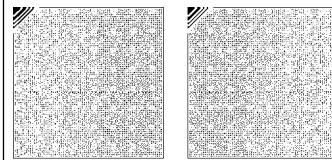
충남남부장복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공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측은 “센터 설립 이후 처음 체결하는 업무협약으로 뜻깊은 일”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협력해 공주시의 건강



충남남부장복과 공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월부터 충남남부장복에 식단과 개발 레시피를 포함해 영양 및 위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급식소 위생관리를 위해 분기별 순회 지도를 실시하며, 장애 아동을 위한 식습관 형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 문경지역 장애인 복지시설 상호 협력 약속

## 지역 장애인 복지사업 공동 추진



문경장북 등 복지시설 4곳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 문경시의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시설 4곳이 뒹뚱했다.

문경시장예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훈), 문경시중중장애일자립지원센터(센터장 박종훈)와 사회복지법인 미오림복지재단 사랑마을(원장 김병운), 친구마을(원장 형동선)은 12월 19일 미오림복지재단 다목적홀에서 장애인 자립지원 및 재활사업과 지역사회 공익 기여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 행사는 박종훈 관장, 김병운 원장, 형동선 원장을 비롯해 각 기관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과 협력에 관한 각종 프로그램 정보를 교환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각 기관이 상호 교육·연수·견학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박종훈 관장은 “장애인 시설 사랑마을, 친구마을과 상호 공동으로 협력해 지역장애인들의 자립생활 향상 및 재활증진을 도모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속적으로 상생관계를 유지하자”고 말했다.

김병운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앞으로 지역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각 기관 종사자간의 협력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 장애인식개선캠페인 ‘I Love you’

### 아산장북, 장애인 인권 강화 지원사업 실시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일대에서 ‘장애인식개선캠페인 I Love you 및 찾아가는 상담서비스’가 펼쳐졌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이창호, 이하 아산장북)이 진행한 이 캠페인은 장애인 인권 강

화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에 중점을 뒀다. 1월 29일 온양온천역 앞에 부스를 설치하고 장애체험을 진행하며 장애인식개선 스티커를 배포했다.

또 복지관 소개와 복지서비스에 대해 홍보하는 한편 현장에서 접수상담을 받는 등 즉석 편의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은 “장애 이해를 돕는 설명과 OX 퀴즈를 통해 장애인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며 “장애인식개선 문구가 대중들에게도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아산장북



아산장북이 온양온천역 일대에서 장애인식개선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창호 관장은 “장애인식개선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주신 아산시 민과 온양온천역 이용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위해 앞으로 힘 쓰겠다”고 전했다.

## 괴산장북, 발달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개강

### 10개월간 사회적응·체력증진 프로그램 등



괴산장북이 발달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개강식을 진행했다.

괴산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효선, 이하 괴산장북)은 1월 30일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개강식을 진행했다. 괴산장북 관계자 및

수강생 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효선 관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정효선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과 사

회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강식을 시작으로 10개월(2~11월)간 실시하는 이 사업은 일상생활 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심리지원 프로그램, 체력증진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발달장애인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지역 내 발달장애인에게 괴산의 특성과 된 자연 친화적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꾀하고 긍정적 자기인식을 갖도록 도움 예정이다.

## 영천장북, 2015년 동계 계절학교 진행

### 경주월드서 사회적응훈련과 외부활동



영천장북이 진행한 동계 계절학교 외부활동 모습.

영천시장예인종합복지관(관장 이제근, 이하 영천장북)이 경주월드에서 2015 동계 계절학교를 진행했다. 1월 16일 지적장애 및 자폐증을 가진 장애 아동 6명과 실시한 계절학교는 여가활동 참여를 통해 아이들이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경주월드 내에서 야외 상

설공원 및 동물 관람, 놀이기구와 눈썰매를 타는 등 다양한 외부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

영천장북 관계자는 “참가한 장애아동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만족스러움을 표현했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감소 효과까지 긍정적인 부분이 컸다”고 밝혔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과 임원, 내빈들이 케이크 커팅을 하면서 장애인 복지 발전을 기원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이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이 특강을 펼치고 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이 지체장애인 지도자들과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있다.



지장협 변창수 충북협회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과 장애인인권위원회 위원장들이 임명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북도 정정순 행정부지사가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청주시 이승훈 시장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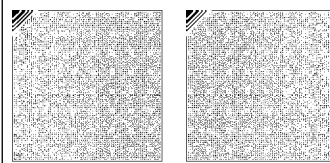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김광환 중앙회장과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 관련 제도

새해를 맞아 기획재정부는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2015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전체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 ■ 활동지원 신청자격 3급까지 확대

6월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된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취지다. 활동지원 급여 시간당 단가도 지난해 8,550원보다 3% 인상한 8,810원으로 지원한다.

## ■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인상

1월부터 경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수당도 인상했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18세 이상의 경증(3~6급) 등록 장애인이다. 기존 3만 원이던 장애수당을 33.3%인상해 4만 원으로 늘렸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은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 ■ 여성장애인 6급까지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출산비용 신청자격이 기존 1~3급에서 6급까지로 늘어 전체 여성장애인으로 확대됐다. 출산비용 지원으로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이 목표다. 시행일은 1월부터이며, 지원액은 기존과 동일한 100만 원이다.

## ■ 장애인 고용부담금 7만 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방식과 부담기초액을 변경했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라 사업주에 부과되는 금액이다. 장애인의 의무고용 미달인원을 구간별로 나눠 각각 다른 부담기초액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미달인원 전체에 하나의 부담기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달라졌다.

부담기초액은 미달인원 1명당 월 71만 원으로 변경됐다.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116만 6,220원이 부과된다.

##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6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한다.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 한다.

기존 최저생계비 80% 수준을 현금 급여로 지급했던 것을 중위소득(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한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28%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상대적 빈곤관점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한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도 현실화한다. 예를 들어 현재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일 경우 기존 290만 원의 소득기준을 464만 원으로 완화한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의료비와 장애용구 등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점을 반영했다.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다.

교육급여는 교육이 기회균등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번 급여체계 개편으로 기존 134만 명이던 지원대상자가 210만 명으로 약 57% 증가하고 지원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장애인등록

5월부터 기존 장애인등록에서 제외됐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해졌다. 국가유공상이자 총 12만 2000명 중 2만 3000명 내외가 복지서비스를 받게 됐다.

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 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 및 등급 심사를 거처도록 하되,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9000여 명의 상이등급자에 대해서는 등록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등록장애인 간의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해 국가유공자의 복지체감 향상을 도모한다.

단, 장애인등록이 허용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공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제한된다.

##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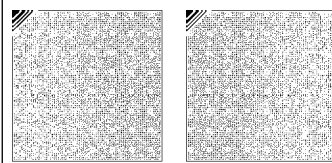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2015년 12월부터 3개월간 동절기에 난방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중위소득 40% 이하 취약계층(장애인·노인·아동 98만 가구)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전기·가스·등유·연탄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 가능하다. 가구원 수, 주거형태, 사용연료 등을 고려해 최대 16만 5000원에서 최소 5만 40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 ■ 장애인 관광 위한 '2015 열린관광지'

장애인·노인·유아 동반가족도 관광 활동의 제약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2015 열린관광지' 사업을 실시한다.

매년 전국 관광지 또는 관광사업장 5개소를 선정해 2억 원 한도 내에서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다. 선정된 후보지는 각 관광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설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연말에 소비자 평가 등을 통해 '열린관광지'로 선정된다.

관광지 또는 관광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개선 계획이 충실한 사업장 뿐 아니라 이미 개선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 ‘2014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작 수기

정명숙 · 전종철 부부

# “하늘이 맺어 준 천생연분, 그리고 기적”

### 상처까지도 닮은 부부의 인연

1남 5녀 중 여섯째로 태어난 저는 세 살 때부터 소아마비로 지체3급의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향 추풍령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한복을 배워 현재까지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마음의 큰 상처를 안았지만 열심히 살던 저는 1985년 지인의 소개로 남편과 운명같이 만났습니다. 키는 조금 작지만 훈훈한 외모의 남편은 저처럼 세 살 때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해졌고 마음에 받은 상처로 결혼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양장점을 하며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합니다. 서로 같은 아픔을 가진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며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 평온한 일상을 깨는 남편의 뇌졸중

우리는 김천 중앙시장에서 사글세 집을 얻어 한복을 만들며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빠듯했지만 마음만은 평화로운 생활 속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난하고 먹고 살기 바빠 쫓겨 먹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장애로 인해 다리가 아파 안아 줄 수도, 업어 줄 수도 없는 현실이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아이를 큰집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성실하게 일했고 6년 만에 작은 가정집을 마련했습니다. 행복한 나날 속에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의 돌을 2달 정도 남겨 두고 남편과 큰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울음소리. 주위의 웅성대는 소리. 이어지는 큰 아들의 말. “아빠가 넘어졌는데 일어나질 않아.” 뇌졸중이었습니다. 무작정 목욕탕으로 달려갔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119구급차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급박한 상황이라 우리는 대구

의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슬픈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의 1시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불려도 대답이 없는 남편, 약해지는 맥박, 말려들어가는 남편의 혀. 허가 말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대구 병원으로 이동하는 내내 남편의 혀를 필사적으로 붙들고 대학병원까지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수술을 했고 다행히도 잘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남편은 눈만 깜빡일 뿐 산송장 같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한 달을 넘기자 의사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포기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무작정 퇴원시켜 집에서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기도 했습니다. 뇌졸중에 좋다는 약과 침 다 맞고 사망으로 뛰어다니며 좋다는 것을 구해서 먹였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남편은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다음엔 발가락, “어”, “아” 발음을 말하며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1년 후 힘들지만 조금씩 걷고 말 하며 호전을 보였습니다. 쓰러지기 전 보다는 몸이 많이 안 좋았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었고, 다시 예전처럼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두 번째 고비...그리고 기적

우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밤 낮 없이 일 하며 안정을 찾아갈 때 남편이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지고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졸중이 오기 직전인데 수술을 해도 가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95%라는 의사의 말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말했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으니 될

수 있는 한 많은 시간을 남편과 보내자고. 마음은 알지만 포기하자는 가족들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수술과 마찬가지로 절대 남편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아버지 곁에서 양쪽 손을 꼭 잡은 두 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번에도 일어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14시간의 긴 수술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신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수술을 끝마치고 나오는 의사의 말은 다행스럽게도 잘 되었다는 것. 하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수술 후 일주일이나 지나도록 식물인간처럼 눈만 깜빡이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쌓이는 병원비는 곧 제가 갚아야 하는 빚이 되었습니다. 병간호를 위해 남편 곁에 있어야 했지만 늘어나는 병원비를 갚기 위해 손 놓았던 한복을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남편을 맡기고 집으로 와서 한복을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김천에서 밤에는 대구 병원에서 한복을 만들며 생활했습니다.

1달 뒤 기적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소리에 반응하는 남편. 소리를 듣고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하늘이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남편은 더듬더듬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아져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한 남편을 눕혀 놓고 빌린 병원비를 갚으며 생활비까지 마련하기 위해 밤을 꼬박새우며 새벽까지 한복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병간호와 집안 일, 애들 뒷바라지 등 정말 하루도 쉴 새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간절한 마음을 남편이 아는 듯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말을 더듬고 오른손을 잘 못쓰고 보조기 없인 걷기 힘들 정도로 장애가 악화되긴 했지만 의사와 이웃 사람들은 모두 ‘기적’이라고 했



2014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정명숙 씨와 남편 전종철 씨

습니다.

### 천생연분 행복한 부부

다시 남편도 서툰 바느질을 조금씩 시작했고 지금까지 같이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가족의 아픔을 지켜본 큰 아들은 유학을 다녀온 후 강남 서래마을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근무 중입니다. 내년이면 미국에 있는 직장으로 갈 예정입니다. 둘째 아들은 엄마 아버지처럼 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살고 싶다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군 제대 후 복학해 부모 곁에서 손과 발이 되어주는 가슴이 따뜻한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았지만 행복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가운데서도 끝까지 저와 남편은 한복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지역(김천시)에서 ‘한복’하면 우리 가게 이름이 나올 정도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동안의 고생과 성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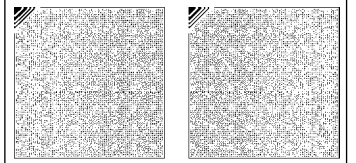
을 인정을 받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결혼 후 중앙시장 안 조그만 사글세 한복집으로 시작해 2013년 대로변의 점포로 『고려한복 혼수방』이라는 간판을 달고 이사했습니다. 지금은 더 없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으나, 사는 것이 힘들어 죽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스스로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옳다고 생각한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늘에서 맺어 준 천생연분,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정해 놓고 오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시련과 아픔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믿으며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희망찬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의 장애보다 두려운 것은 마음의 장애입니다.





#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확대 필요

## 분류체계도 개선, 장애인에 맞게 세분화해야

“현행 장애인보장구 지원 제도 시행과 관련해 지원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보장구 분류체계를 세분화해 장애당사자가 자신에게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1월 21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보장구 품목확대 및 분류체계 개선 등의 연구 공청회’에서 인제대 작업치료학과 양영애 교수가 주장한 내용이다.

이날 양 교수는 설문조사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을 통한 연구결과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유형별로 급여확대가 필요한 품목 및 선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또 “보장구 분류체계 또한 의지 보조기는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 그 외의 품목은 통합돼 있지 않아 불편이 따른다”며 “보장구 수가산정 방법 및 유형별 기준액 등이 반영된 분류체계를 제시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이 실제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



장애인보장구 품목확대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 양 교수는 “현행 보조기구 관련 사업은 중앙의 5개 부처로 나뉘어 산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부처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비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이중지원으로 인한 예산 낭비, 대상자의 누락 및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양 교수는 “국가 차원의

가칭 ‘장애인보장구지원위원회’를 조직하여 종합계획 수립, 부처간의 정책추진사항 조율, 종합계획 이행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보조기기법 제정, 인증제도 입해야

발제에 이어진 패널토론은 좌장인 김종배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공진용 나사렛대 교수, 이진현 대구보조

기구센터 실장,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김종배 교수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장애인보장구 지원체계는 그 품목과 지원금액이 매우 제한적이며 서비스 절차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실제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제한적인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적했다. 공진용 교수는 “장애인보장구

지원위원회에 대한 필요성은 지지하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보건복지부내 건강보험 교부사업 복지용구 등의 통합을 위한 복지부내 조정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타 부처와 통합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진용 교수는 또 “국가차원의 보장구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재원이 아닌 공공부조의 개념으로 일반회계 재원확대를 통한 사업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문희 한국장총 사무차장은 보장구사업 개선방안과 관련, 가칭 장애인 보조기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을 통한 보조기구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급여방식 장애인 소득수준에 맞게 세분화 △내구연한내 재지급 제도에 대한 기준 완화 △생애주기별 신체변형 등에 적합한 보조기구 지급 등 현실화된 대안을 제시했다.

## LPG 차량 도너츠형 용기 교체비용 할인 프로모션

트렁크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LPG용기를 도너츠형 용기로 교체함으로 트렁크에 휠체어나 큰 짐을 적재할 수 있도록 하여 LPG차량을 운전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교체대상

○ LPG차량에 트렁크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협회 회원 및 회원 보호자

### 교체가능차량

○ LPG차량 중에 LPLi 엔진(현대/기아자동차) 차량 (단, 가솔린 차량을 LPG로 구조변경 한 차량이나 LPGi 차량은 제외)

### 신청방법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용기 교체비용 할인 프로모션 신청서』작성(www.kappd.or.kr)

### 프로모션기간

○ 2015년 2월 23일 ~ 12월31일(약10개월)

### 프로모션금액

○ 시중가 109만원, 프로모션가격 65만원(부가세 별도)

### 문의처

○ (주)로 영업팀 김형일차장 TEL : 1599-0377 MOBILE : 010-2668-8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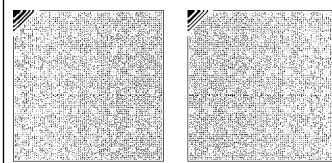
### 프로모션 할인 금액

109만원 → 65만원  
(부가세 별도)



### 대형 가솔린승용차 LPG개조

도너츠형 LPG 용기 장착 및 DLM기술을 통한 가솔린과 동일한 출력 및 연비 보장  
(주)RO로 문의주세요!



# 전 세계 화제작, ‘트라이브’ 국내 개봉

## 대사 · 자막 · 음악 없이 수화로 진행



영화 '트라이브' 포스터. ©네이버영화

대사와 자막, 음악 없이 오직 수화로만 이야기가 진행되는 파격적인 설정과 독특한 연출로 전 세계를 휩쓴 화제의 영화 ‘트라이브’가 개봉했다.

이브’가 개봉했다.

1월 29일 막을 올린 이 영화는 청각 · 언어장애 기숙사 학교로 전학 온 소년 ‘세르게이’가 청각 장애인 학교로 전학 가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곳에서는 교사와 학생들 모두 수화로 의사소통을 한다. 좋은 환경을 가진 학교처럼 보이지만 어른이 사라지면 학교를 휘어잡고 있는 조직(The Tribe)을 중심으로 잔인한 청소년들의 세계가 시작된다. 소년은 소외되고 괴롭힘을 당하는 시기를 거쳐 조직의 일원이 되면서 그들과 함께 어린 학생의 돈을 갈취하는 등 조직의 방식에 익숙해진다. 그동안 세르게이는 리더

의 여자친구인 ‘안나’와 사랑에 빠지며 비밀스런 사랑을 나눈다.

‘트라이브’는 세르게이가 전학 온 시점부터 은밀한 사랑을 나누고 이를 지키려 조직의 물을 깨뜨리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사랑과 증오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사실적이고 독창적으로 담아냈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 인물들의 수화로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한다. 그들의 몸짓이 전부이기에 자막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배우가 연기 경험이 없는 청각장애인으로 리얼리티를 살렸다. 청각장애인 공개 오

디션에는 3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고, 배우 캐스팅에만 1년을 쏟았다.

메가폰을 잡은 미로슬라브 슬라보슈비츠키(우크라이나) 감독은 “이 영화는 무성영화에 대한 내 오랜 꿈을 실현시킨 것이다”라고 작품을 만든 계기를 밝혔다. 영화는 대사와 자막 없이도 캐릭터 간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영상을 교차편집 해 긴장감을 보여준다.

미로슬라브 감독은 어린 시절 청각장애인 특수학교 맞은편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그들이 수화에 매혹되었다고 털어 냈다. 그는 영화학교를 졸업한 뒤 2000

년부터 무성영화에 대한 오마주를 꿈꿨다.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이해하기 쉬운 무성영화를 만들고자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전했다.

개막 후 영화를 관람한 누리꾼들은 “고요 속의 격렬함(kiis\*\*\*\*)”, “말이 아닌 몸으로 말하는 언어 또한 존중받길(exit\*\*\*\*)” 등의 감상평을 올렸다.

지난해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대상을 비롯한 3관왕을 수상하는 등 전 세계 30여 개국의 유수 영화제 주요부문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이 영화는 전국에서 상영 중이며, 관람등급은 청소년 관람불가다.

## 청송군 여성장애인 천연염색 스카프 DIY

### 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섬유공예 교육

청송군 여성장애인들이 천연염색으로 스카프를 만들었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청송군 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센터장 조승철) 한지공예 작업실에서 12월 19일 실시한

천연염색 보수교육에 여성 활동가 12명이 참가해 섬유공예를 배웠다.

이날 김춘화 섬유공예가를 초빙해 진행된 교육은 자연에서 얻는 색감의 이론적 의미에

서 시작해 천의 결 따라 물들이는 천연염색법 실전으로 이어졌다. 교육을 들은 여성 활동가들은 각각 개성을 살려 스카프를 물들이고 목에 걸며 기뻐했다.



천연염색 보수교육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육을 주최한 조승철 센터장은 “앞으로 여성 활동가들이 더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장애인재단, 동물화가 신수성 전시회 개최

### 순수하고 맑은 심성 담아



동물화가 신수성이 전시회를 열었다.

발달장애를 가진 동물화가 신수성의 전시회가 열렸다. 12월 22일 서울 자양동 갤러리 카페 파티클에서 한국장애인재단이

사장 이채필)을 통해 열린 이 전시회는 장애인의 꿈을 응원하는 나눔 공간을 만드는 취지로 진행됐다.

파티클과 유گی글로벌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동물화가 신수성의 미술적인 재능을 엿볼 수 있는 그림들이 전시됐다. 신수성 화가는 전시를 통해 판매된 작품의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작가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또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장애인재단의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방송인 안선영과 장애아동(발달장애, 청각장애)들이 함께 만든 허브나눔향초를 판매했다. 해당 제품의 판매 수익금은 전액 한국장애인재단의 12가지 허브나눔사업(장애인 공익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꿈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 시청각장애인용 앱 ‘영상자료관’ 출시

### 수화영상도서, 화면해설영상 2247점 자유롭게 감상

국립중앙도서관은 시각 · 청각장애인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하게 수화 · 자막 영상자료, 화면 해설 영상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영상자료관’을 출시했다.

그간 장애인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영상자료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DVD로 제작된 자료를 받아봐야 했다. 인터넷 스트리밍의 경우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 자주 끊어지기도 하고 재생 속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DVD는 반드시 플레이어를 갖춰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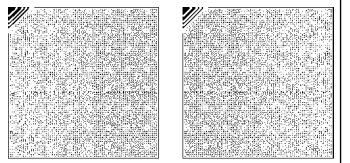
국내 처음으로 개발한 이 앱은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행정자치부)’에 따라 손쉬운 조작, 정보표현, 음성 안내, 수화 해설 기능 등 모바일의 특성 및 기능을 탑재했다.

이 앱을 활용하면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용 수화영상도서자료 1,303점, 자막영상자료 662점,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 영상자료 282점 등 총 2,247점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도서관은 추가로 매년 약 500점씩 새롭게 제작해 서비스 할 예정이다.

‘영상자료관’ 앱은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척수장애인 위한 유산소 운동법 공개

## 척수협 · 연세대 공동 연구 발표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척수장애인을 위한 유산소 운동 매뉴얼을 공개했다.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회장 구근회)는 연세대학교 스포츠의학 연구실(소장 전용관)과 함께 ‘운동을 일상으로, 척수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운동법’을 공개했다.

매뉴얼과 동영상 프로그램에는 관절운동, 스트레칭, 근력운동, 서킷트레이닝, 마무리 스트레칭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 정도에 따라 경수장애인(사지

마비) 버전과 흉수장애인(하지마비) 및 비장애인 버전으로 나누어 구성돼 있다.

운동 동영상에는 전문 트레이너 연세대학교 스포츠의학연구실 김동일 박사와 척수장애인 당사자(최국화 · 흉수장애/임세은 · 경수장애)가 직접 출연했다. 별다른 운동 도구 없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척수장애인의 경우 척수 손상 후 기초체력 관리에 대한 정보 부족과 체력 약화로 인해 병원의 존도가 높다. 경수손상(사지마비) 장애인의 경우 물리치료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없다. 이번에 제작된 운동법이 척수장애인의 일상생활 체력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뉴얼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홈페이지([www.kscia.org](http://www.kscia.org)) 혹은 유튜브([www.youtube.com](http://www.youtube.com))를 통해 무료로 볼 수 있다.

## 장애인스포츠 홍보 캐릭터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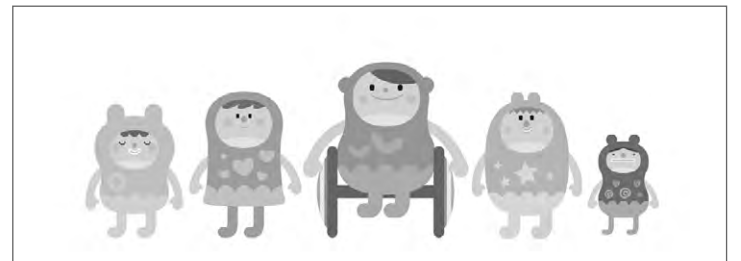
### 대한장애인체육회 다섯 손가락 상징 표현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스포츠를 홍보할 캐릭터를 제작해 공개했다. 다섯 손가락을 모티브로 만든 이 캐릭터는 대중에게 장애인스포츠를 친근하게 알리려는 취지로 탄생했다. 각각 하나의 손가락에도 의미와 역할이 있지만 다섯 손가락이 모이면

혼자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낼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엄지손가락을 모티브로 삼은 '마루'는 꼭대기를 나타내는 의미를 부여했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담았다. 으름인 모든 것에 엄지를 드는 제스처를 본떠 만들었다. 두

번째 아이 '두나'는 검지를 캐릭터화 했으며 마음 따뜻한 사랑의 의미를 표현했다.

하랑은 다섯 손가락 중 가장 높이 솟아 있는 중지를 상징한다. 높다는 뜻의 '하'와 함께한다는 의미의 '랑'을 붙였으며, 함께 높이 도약하자는 의지를 담



왼쪽부터 마루, 두나, 하랑, 루다, 토리.

았다. 꿈과 목표를 품은 캐릭터 '루다'는 '이루다'에서 따왔다. 손가락 중 약지를 형상화했다. 다섯 번째 손가락을 그린 '토리'는 도토리처럼 왜소하지만 아무 지고 웅골차다는 의미로 만들었으며 믿음과 신뢰를 상징한다.

이밖에 캐릭터를 활용한 장애인 종목 응용 동작도 개발했다. 골볼, 보치아, 아이스슬레지하키 등 29개 종목을 형상화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캐릭터를 활용해 장애인스포츠의 강점을 홍보할 계획이다.

## 김천장복 장애인 건강 위한 탁구교실 개강

### 1:1 지도 통해 전문성 강화



김천장복에서 장애인 탁구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하, 이하 김천장복)은 1월 9일 복지관 강당에서 탁구교실을 개강했다.

탁구는 남녀노소 장소의 구애

를 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의 대표적 운동이다. 김천장복은 장애인의 여가생활 활용과 재활을 돕고자 탁구교실을

열었다.

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민첩성 · 교차성 · 순발력 · 유연성을 기르는 한편, 각종 대회 출전을 통해 자신감과 사회성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김천시생활체육회 백강숙 강사의 1:1 지도를 통해 운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선하 관장은 “이용고객들이 탁구교실 참여 후 다양한 탁구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실력이 나날이 향상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탁구뿐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체력향상과 건강증

## 문경시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 2016년 준공, 장애인스포츠 확대 기여

경상북도 문경시에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생긴다. 문경시는 모전동 415-1번지 문경종합운동장 일원에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연면적 1716m2 규모의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준공할 계획이다.

2016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체육관은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의 경기가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문경시는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소화하기 위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선진 도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체육관 건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체육관이 건립되면 문경시 장애인을 비롯해 인근 지역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은 물론, 장애인스포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향상을 도모하며,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탁구교실은 매주 수, 금요일 10시부터 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다. 기술 습득 후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정기 교류전을 실시해 실력을 점검하는 기회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 채용 시 급증한 성격검사, 장애인 차별

##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 장애인 차별여부 조사

노키아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변호사 톨랜드 뱀은 아들 카일을 대신해, 채용 시 성격검사로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혐의로 크로거 등 6개 기업을 고소했다.

지난 10년 사이, 기업들이 채용 시 온라인 성격검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급증했다.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이 고소를 바탕으로 성격검사가 장애인을 차별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EOC 문서에 따르면 우울증, 양극성 장애 등 정신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업무에 적합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격검사로 채용에서 배제되고 있는지도 조사 내용에 포함된다.

고용주들은 조사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성격검사에 대해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기업과 검사 제공업체들이 자기네 검사는 차별적이지 않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한 노동 다양성 전문가가 말했다.

검사 제공업체들은 자체 조사



톨랜드 뱀은 장애인 고용 차별로 기업을 고소했다(사진 : Wall Street Journal).

결과 성격검사에서 인종이나 성별로 인해 지원자가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거의 없다.

채용 과정에 쓰이는 성격검사

는 대체로 1930년대에 개발된 심리학 모형에 기반 한 것이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성격 특성은 직장에서의 성과와 큰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다. 조직심리학을 연구하는 프레드 모그슨

미시간주립대 경영학 교수는 “관리자들은 성격검사를 매력적으로 느끼지만 성격과 성과 사이의 연관성은 생각보다 훨씬 낮다”고 말했다.

카일 뱀은 피니시라인, 홈디

포, 크로거, 로우스, 펙스마트, 월그린, 엠브랜즈에 입사 지원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머서대학교에서 공학을 공부하는 카일은 18개월 전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비슷한 일을 무리 없이 수행했다.

카일의 아버지는 위의 기업에 연락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부분 잘못을 부인하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동의할 경우 카일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아버지와 아들은 위 기업들의 채용 절차가 바뀌기를 바라며 EEOC를 통해 차별 혐의로 그들을 고소했다.

카일은 거짓으로 더 쾌활해 보이는 답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며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윤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 직장에서는 자신의 장애가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들이 예전 직장에 연락해봤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1분간의 중력 이탈...장애인 스카이다이버

### 두바이의 자렛 마틴 화제



자렛 마틴이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있다(사진 : CNN).

저마다의 경험으로 최고의 스킨을 자랑하는 종목이 다르겠지만, 영화 <버킷 리스트>에서도 꼽혔듯 스카이다이빙은 반드시 죽기 전에 해봐야 할 레저스포츠로 손꼽힌다. 항공기 밖으로 점프를 하여 일정 시간 자유롭게 낙하하면서 다양한 곡예를 수행하고 그 다음 낙하산을 펼치는 스포츠다.

자격을 갖춘 장애인 스카이다이버 자렛 마틴(24세)이 두바이에서 화제다. 그는 19살에 스카이다이빙을 하다 다쳐 하반신 장애가 생겼다. 그러나 주위의 만

류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다이빙을 포기하지 않았다.

마틴은 “스카이다이빙으로 얻는 기쁨이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즐긴다”고 말한다.

다른 선수들보다 균형 잡기가 쉽지 않지만 자유비행 및 캐노피 파일럿 수행 대회에서 성공한 그에게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마틴은 3천피트의 정상에서 자신의 휠체어를 떠나, 스카이다이빙을 완료하는 최초의 장애인이 되었다.

## “지적장애인 고용, 기업에 이득”

### 세계부호 2위 카를로스 슬림 주장



카를로스 슬림은 지적장애인 고용이 기업에 이득이라고 주장한다(사진 : Wall Street Journal).

통신업계 억만장자 카를로스 슬림과 자선가 앤서니 케네디 슈라이버는 기업이 지적장애인 고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난독증, 다운증후군 등 지적장애 또는 발달장애를 지닌 이들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다. 미국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지적장애·발달장애를 가진 성인 중 85%가 유급으로 일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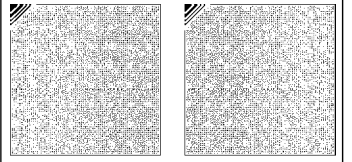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슬림은 다른 기업 임원들도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두 사람은 성인 장애인의 고용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1989년 베스트버디 인터내셔널을 설립한 슈라이버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이며, 그의 어머니인 유니스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스페셜 올림픽을 창설했

다.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슬림은 “우리 회사에서 지적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곳은 콜센터다. 그들은 매우 성실하고 회사 전체의 사기 진작에 좋다. 기업생산성연구소의 최근 조사에서는 지적장애인 직원들이 출근, 생산성 등의 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슈라이버는 “지금까지 기업이 지적장애인 고용을 꺼린 이유는 직접 만나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적장애인은 오랜 역사에 걸쳐 무능하고 고도의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겼고 자선 사업의 대상으로만 간주했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에게 지적장애인에게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들이 결국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채용을 독려했다.

이 둘은 기업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꾸준히 장애인 채용을 강조하고 있다. 조직 전체의 사기를 높이는 데 좋고 부채를 자산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 이동권을 말하다!

## 이동권 확보 위한 권리투쟁 모색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국 박성오 과장

2012년 말 기준 전체 인구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55.7%지만 장애인의 소지비율은 5.4%에 그쳤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 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52.7%로 장애인 당사자가 운전하거나, 장애인을 위해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큰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약법)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그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중 하나인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형편이다. 그렇

다고 대중교통수단을 통해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장애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 차량에 대해 면세유 지원 및 운전 편의장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장애인 LPG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도 폐지 등 장애인 이동권을 더욱 퇴보시키고 있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차량에 한해서 장애인 운전 보조장치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근로자만을 위한 지원제도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제도가 모든 장애인에

게 확대되길 바란다.

독일이나 미국 등의 경우 지역마다 장애인운전재활센터를 두어 중증장애인의 운전능력을 개별로 파악해 적절한 교육을 지원하고 차량개조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여러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 장애인차량 운전지원 추진연대를 구성하였으며,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권리투쟁을 모색 중이다.

### 장애인을 위한 운전보조장치 및 각종 편의장치

① 핸드컨트롤러 : 하지에 장애가 있어 발로 액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경우 손을 이용하여 액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용성오토

② 왼발 액셀레이터 : 오른발의 기능 저하로 인하여 액셀레이터를 밟지 못하는 경우 왼발을 이용해 액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도록 왼쪽에 액셀레이터를 장착하였다. ©용성오토

③ 우측 방향지시등 조작기 : 상지 중 왼손의 기능이 약하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기 어려운 경우 방향지시등 조작기를 오른쪽에 추가로 장착하여 오른손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용성오토

④ 체어탑퍼 :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형태인 휠체어 탑퍼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기 위하여 운전석으로 옮겨 탄 후 접이식 수동휠체어를 본인 차량의 지붕에 적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동 휠체어 적재장치다. ©토탈어빌리티



### 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편의장치

⑤ 전동시트 : 본인 스스로 차량에 탑승할 수 없는 장애인을 손쉽게 차량에 승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동시트가 있다. ©오텍

⑥ 휠체어리프트 : 휠체어 탑승 장애인을 차량에 승차시키기 위한 휠체어리프트는 일반화 된 보조시설이다. ©오텍

⑦ 휠체어 슬로프 : 휠체어 탑승 장애인을 차량에 승차시키기 위한 장비 중 하나로 전동식 슬로프나 수동식 슬로프가 이용된다. ©오텍

⑧ 호이스트 리프트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운전을 하거나, 장시간 이동시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이동하기 어려워 차량시트에 옮겨탄 후 휠체어 특히 중량물의 전동휠체어를 차량에 적재할 때 호이스트 리프트를 이용하여 힘을 들이지 않고도 휠체어를 차량에 적재할 수 있다. ©토탈어빌리티



장애인 자가 운전자용 보조장치와 장애인 보호자용 보조장치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인 자가 운전자용 보조장치로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핸드 컨트롤러, 왼발 액셀레이터, 우측 방향지시등 조작기 등이 있다. 자세한 설명은 사진을 통해서 하겠다.

## 고용상담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

## 사업주 변경 시, 체불임금의 형사책임은?

## 후임 사업주 취임 후 퇴사, 형사책임은 후임 사업주에게



대다수의 장애인근로자는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면 생존에 위협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가정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재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영세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얼마 전 상담을 했던 지체5급 장애인인 피상담자도 현재까지 약 4개월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 전 사업주가 바뀌었다. 사업주가 변경되기 전부터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직원 대부분의 임금이 수개월 체불되어 있었고, 일부 퇴사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였다.

그런데 새로 취임한 사업주는 본인의 취임 이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한 경우였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체불이 되면, 체불임금을 지급해야할 채무변제 의무(민사상 의무)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형법상 회사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자인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처럼 임금체불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체불 당시의 사업주가 형사책임을 지게 되고, 후임 사업주는 자신의 취임 후에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면된다.

앞에서 말한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

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정기일 지급의무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

반으로 형사책임이 부과되고, 체불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 당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전임 사업주 때에 발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조호근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조호근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조호근

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당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

생한 체불임금이라 하더라도 후임 사업주 취임 후에 퇴사를 했다면, 전체 임금체불액에 대한 형사책임이 후임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도 있다.

## 민원상담

임상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장)



**Q) 장애인 신규 채용이나 고용유지시 국가가 급여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급여지원에 어떤 것이 있나요?**

**A)** 사업주가 실업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고, 통상 근로자와 처우에 있어 차별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일 때 새로 채용된 시

간선택제 근로자 임금의 5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월 한도액은 60만 원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80만 원 한도입니다. 결국 파트타임 고용자를 대상으로 기존 정규 근로자와 차별 없는 급여를 지급할 때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Q)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시 이외 추가지원도 있는지요?**

**A)**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

서는 기본적으로 『①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② 급여는 최저임금 130~300% 지급하여야 하며, ③ 주 15~30시간 근로하고, ④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이 없을 때』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위의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2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보험요율은 총 5.4~5.6%(고용보험 0.9~1.1%, 국민연금 4.5%)정도로 매월 200만 원 급여자를 채용한 것으로 가정하면 2년간 총 268

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원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시 쾌적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도 있는지요?**

**A)** 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기숙사, 통근버스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 고용을 확대한 경우 시설비는 최대 5천만 원(증가근로자 1인당 1천만 원)이며 그 이상의 지원이 필

요한 경우에는 용자를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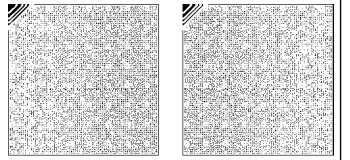
**Q) 특화 또는 특정업체인 경우 별도의 지원책은 없는지요?**

**A)**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으로 성장유망업종, 국내복귀유턴기업, 지역특화산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게는 근로자 고용을 확대한 경우 1인당 연 720만 원~연 1,08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인력채용지원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우선 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하는 경우 기업당 3명 한도 내에서 새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1,08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고용(I) 지원정책





# 지역장애인의 행복한 일터, 롯데마트 아산터미널점

##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는 장애인 사원들

1월 27일 오후, 아산시 모종동에 위치한 롯데마트 아산터미널점. 오늘도 조리식품부 최인선(23세) 사원의 초밥을 만드는 손놀림이 바쁘다. 밥을 짓고,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초밥을 만들어 먹음직스럽게 쟁반에 담아냈다.

인선 씨는 뇌병변 3급이다. 그녀가 하는 일은 마트 내 즉석 요리코너에서 다양한 식품을 만들어 판매를 준비하는 업무다. 장애가 있는 그녀에게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다. 작업이 익숙해지기까지 3개월이란 시간이 필요했다.

장애로 인해 다리가 불편한 그녀는 바쁘게 움직이는 주방에서 신속하게 주어진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주위 동료와 상사의 도움 없이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척척 해낸다.

이곳은 인선 씨에겐 첫 직장이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북)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그녀는 아산장북 추천으로 면접을 통해 2014년 11월 롯데마트 아산터미널점에 입사했다. 이곳에서는 현재 그녀를 포함한 3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인선 씨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주부사원은 그녀를 대견하게 바라보며 “인선은 아직 사회초년생임에도 진지한 태도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 기특하다”며 “장애인이란 해 동정 어린 시선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걸 느꼈고, 성실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인선 씨는 이 곳에서 일하면서 출퇴근길이 멀고 교통편이 불편해 분주히 출근을 서두른다. 하지만 일하는 즐거움에 비하면 출퇴근은 힘든 일도 아니라고 말한다. 지금껏 지각 한번 한 적이 없는 그녀는 남보다 서둘러 출근해 오늘 할 일을 준비한다. “일을 통해 부모님께도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함박웃음을 지어 보인다.

마트 내 자율포장대에서는 고객이 쇼핑 후 구입한 물품의 포장을 돕고, 능숙한 손길로 물품 운반에 필요한 박스를 크기 별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김찬혁 씨(25세)가 있다.

지적장애(3급)인 찬혁 씨는 이곳에서는 ‘통통 튀는 분위기 메

이커’다. 그는 활발한 성격으로 늘 밝은 미소로 마트를 찾는 고객과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하며, 긍정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는 다음 달이면 입사 1년이 된다. 마트에서 일하며 자립심을 키웠다. 처음에는 일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아산장북 선생님의 직무지도와 동료들의 도움으로 부단히 노력해 지금은 자율포장대 직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할 정도로 뛰어난 직원이 되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집에서만 있을 때는 생활이 무료했지만, 이제는 일하는 내 모습이 제일 자랑스러워요”라고 말하며 “앞으로 열심히 일해 여자친구가 생기면 장가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마트 입구 근거리배송 접수처에서는 친절 사원 시각장애인 김지연 씨(38세)를 만날 수 있다. 쇼핑을 마친 고객에게 구입물품 무료 배송 절차를 안내하고, 배송 요청 시 고객의 쇼핑목록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해 관련사항을 전산에 등록하고 기사와 연결해 야무지게 배송절차를 점검한다.



롯데마트 아산터미널점 장애인 사원들과 차상호 영업매니저.

내성적인 성격인 지연씨는 처음에는 손님들을 직접 대면하며 편안한 모습으로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과 성실함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일 잘하는 친절사원’이 되었다. 지금은 근거리배송 접수 뿐 아니라 유모차 대여 업무까지도 병행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직무수행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삶의 성취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그녀는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롯데마트 차상호 영업매니저는 “우리는 장애인 사원을 볼 때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다”며 “그들의 할 수 있는 일들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직무능률 향상을 도울 뿐”이라고 말한다.

향후 장애인 채용계획에 대해 묻자 “직원 수시 채용 시 적합직종으로의 수시채용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용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활동 확대와 지역사회 내 인식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올해의 편한 일터’ 선정

### (주)위드유 등 3개 사업장 수상



(주)위드유가 올해의 편한 일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주)위드유 등 3개 사업장을 ‘올해의 편한 일터’로 선정했다.

‘올해의 편한 일터’ 상은 장애

인 고용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에 처음 만든 상으로,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다.

최우수상으로는 LG유플러스에서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

준사업장 (주)위드유가 선정됐다. (주)위드유는 장애인 화장실에 높낮이 조절 세면대와 비데를 설치해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하고, 휠체어 장애인이 사무실 내에서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 공간을 넓게 만들었다. 모회사인 LG유플러스와 연계해 중고단말기 등급 판정 업무 등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개발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이 밖에 넓은 개인 업무 공간을 만들고 사무실 내 휴게공간인 카페테리아를 설치한 (재)행복한 웹앤미디어, 사무실로 출입하는 전 구간에 턱이 없는 출입문을 설치한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 장애인 채용 지원 궁금하면

### ‘고용안정지원 앱’

### 신청방법과 서식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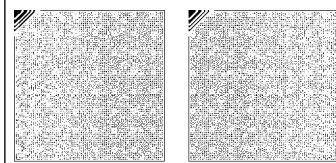
고용노동부가 고용안정사업을 소개하는 ‘고용안정지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시작했다.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채용 근로자를 늘리면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안정사업 활성화를 위해 준비한 이 앱은 1월 5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소개 대상 사업으로는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이다. 고용기회를 확대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창출지원금 사업과 장애인 등의 채용 시 지원되

는 고용촉진지원금, 근로자의 실직 예방에 노력한 기업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 앱을 이용하면 개별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맞춤형으로 소개받을 수 있고 신청방법과 신청 서식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앱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고용안정지원’을 입력한 뒤 검색해 다운로드하면 된다.



# ‘기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 진천장복, 희망의 운동화 전달

### 진천군 장미로타리클럽 전액 후원



진천장복에서 희망의 운동화를 전달하고 있다.

진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한명수, 이하 진천장복)은 12월 15일 복지관 강당에서 지역 내 진천군 장미로타리클럽 이영숙 회장(국제로타리3740지구 제10지역)의 지원으로 재가 장애인 자녀에게 ‘희망의 운동화’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가정형편이 열악

지역사회 내 적극적인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기획했다.

진천장복 측은 “진천군 장미로타리클럽의 전액 후원 덕분에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었다”며 “지역 내 소외된 장애인 가정에 관심과 사랑을 실천해 준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 재가 장애인 가정의 자녀 10명에게 운동화 지원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유도하고, 성장기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을 돕기 위해 실시했다. 후원자나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지지층을 마련하고



포항해맞이로타리클럽이 포항시지회가 추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고 2학년), 권민영(포항전자여고 1학년) 학생을 비롯해 총 7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포항해맞이로타리클럽 장재근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들을 돕고 싶었다”며 “내년에도 클

## 포항해맞이로타리클럽, 포항시지회에 장학금 전달

### 가계곤란 학생 7명 수여

국제로타리 3630지구 포항해맞이로타리클럽(회장 장재근)은 창립 9주년을 맞아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지회장 이경목, 이하 포항시지회)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12월 29일 열린 수여식에서 포항시지회가 추천한 김명주(구룡포과학기술

럽강령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봉사하겠다”고 전했다.

포항해맞이로타리클럽은 2005년 12월 창립 이래로 지역민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으며, 포항시지회와는 지난해 6월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복지증진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7개 시·도 협회와 230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500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 ■ 회원구분

일반회원1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 ■ 후원금 납부방법

- 자동이체, CMS
-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후원신청

- ① 전화신청 : ☎02)796-4280
- ②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 ■ 2014년 12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강경민, 고인철, 김경아, 김경희, 김구환, 김민영, 김성운, 김순덕, 김영미, 김영진, 김인수, 김인순, 김정기, 김정태, 김정훈, 김정희, 김준곤, 김진호, 김창곤, 김현정, 김형욱, 김환경, 나금숙, 문민숙, 박소연, 박종대, 박종순, 박종형, 박현순, 반형만, 방순임, 배태환, 백금희, 서동녀, 선병욱, 안병현, 원종빈, 유재복, 유종표, 육근록, 육종구, 윤채환, 이상훈, 이순영, 이은정, 이장제, 임채중, 장추자, 정다운, 조기현, 조남희, 주명희, 주승운, 주영래, 진미라, 최병철, 최선영, 하정미, 황보훈, 황정연,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삼성웰스토리(주), 정읍시장장애인복지관, 초록어린이집, IBK경동지역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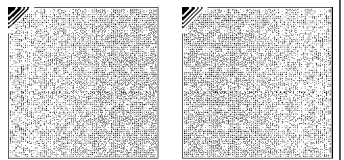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500만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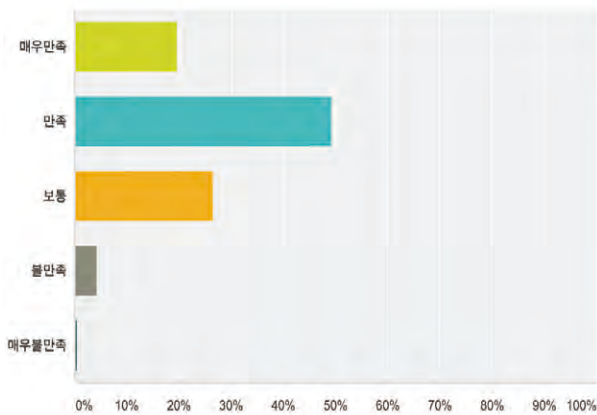
# 새보람 만족도 조사 결과

2014년 12월 한 달간 <새보람>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응답자 425분이 다음과 같이 답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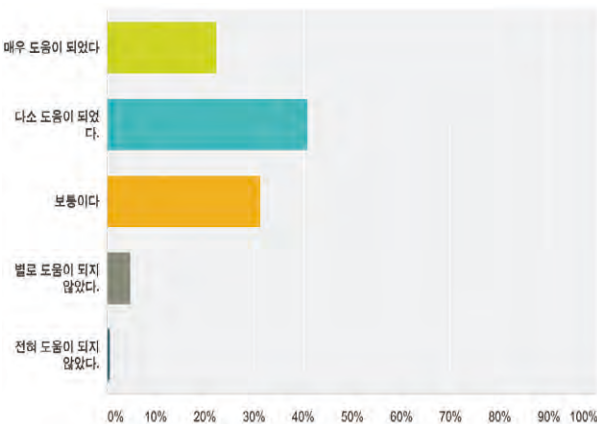
## 소리로 읽는 새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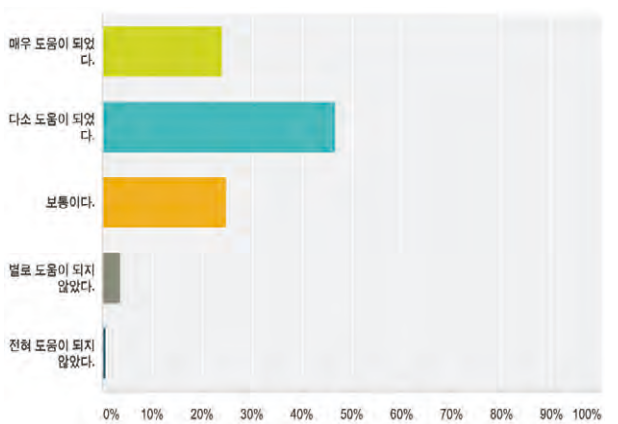
### ‘2014년 새보람’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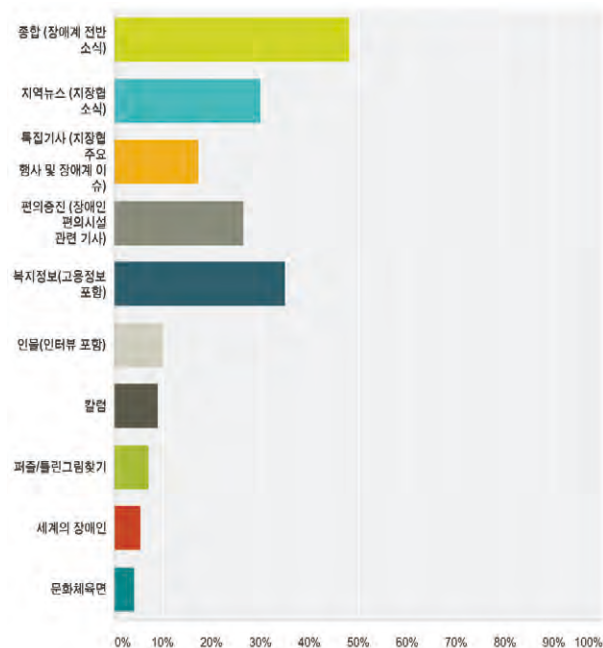
### ‘2014년 새보람’이 장애인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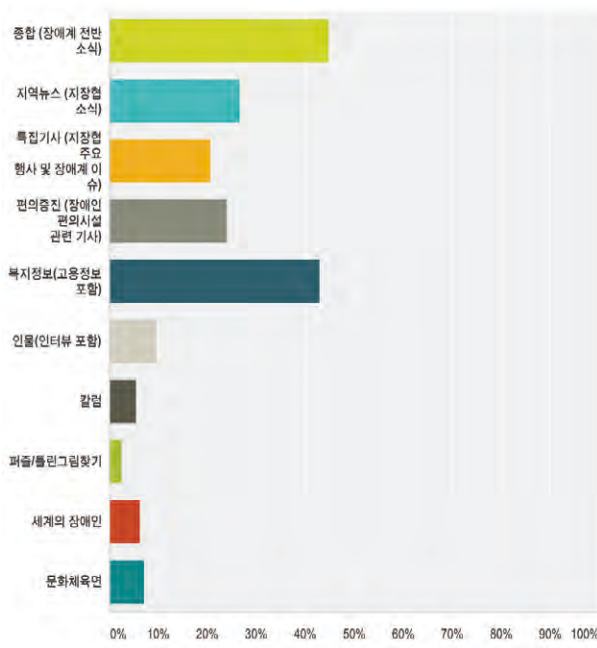
### ‘2014년 새보람’이 장애인복지관련 정보획득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2014년 새보람’의 기사 중 가장 즐겨보셨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2개 선택)



### ‘2015년 새보람’에 더욱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기사는 무엇입니까? (2개 선택)



만족도조사에 응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유익한 <새보람>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 기타 독자의견 –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법개정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시고,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많이 게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북 영천시 최상락

복지 정보나 문화체육, 칼럼을 보면 무엇인가를 나도 해보겠다고 하는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기사를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송파구 이현기

장애인 부부의 생활수기라던지,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연탄나누기 등 훈훈한 정이 깃든 소식을 더 많이 접했으면 합니다. –경북 안동시 신순미

매월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쉬는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만을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넬름, 알레를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물결편지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 응모요령

우편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곳(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이메일 : news@kappd.or.kr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호 정답

## 장애등급심사

## 당첨자

조숙희 강원 동해시  
김희원 충북 괴산군  
박숙은 서울 노원구

## 독자퀴즈

-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2015년 ○○○○○○ 및 전국 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하며 한 해 실천 계획을 설계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 LPG자동차의 단점인 좁은 트렁크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활용해 휠체어나 큰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이것’ 모양의 LPG 용기 장착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

힌트 : 정답은 기사 속에 있습니다.



#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진작가 정연호 님의 재능기부 작품  
의도 : 새해 일출  
장소 : 속초 동명항  
일시 : 2015년 1월 1일 8:00